

## ■ 축산경영 강좌 ①

# 축산경영의 목적

정 찬 길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 1. 축산경영이란?

토지를 주된 생산요소(生産要素)로 하여 유용한 작물(作物)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을 산출(產出)해 내는 것을 농업(農業)이라고 한다면 축산은 농업의 한 분야로서 일정한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증식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산물(產物)을 얻거나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업(業)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을 함으로써 얻는 산물과 이익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먼저 식품(고기, 젖, 알 등), 의류원료(가죽, 털 등)가 있으며 이밖에 의약품 원료, 농업생산자재(구비)를 얻을 수 있고 축력(畜力)을 이용(경운, 수송 등)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축산으로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조달하고 여러모로 생활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의미에서 축산은 인류문명(人類文明)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축산경영(畜産經營)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축산이라는 생산활동과 경영이라는 개념이 함께 명백히 이해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축산업자가 일정한 목적(예: 이윤극대화)을 가지고 토지(土地), 노동(勞動), 자본(資本)을 이용하여 사료작물의 재배, 가축의 사양, 축산물의 가공 등을 함으로써 축산물을 산출하고 또 그의 이용, 판매 처분을 행하는

### 축산 경영 · 경제 강좌 목차

#### ■ 축산경영의 목적

- 축산경영의 요소
- 축산경영의 방식과 형태
- 축산물 생산비 종류, 평가방법
- 축산경영 조직
- 축산경영 규모
- 축산물가격과 시장
- 축산부기 및 회계
- 축산물 유통
- 축산사료의 수급과 가격변동
- 축산경영의 분석과 계획

(개재순서는 변동될 수도 있음)

조직적(組織的)이고 통일적인 경영단위(經營單位)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즉, 축산경영이란 기술적인 생산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에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축산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제활동(經濟活動)인 것이다. 만약에 축산경영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고기, 젖, 알 등의 생산만을 담당하는 하나의 작업단위로서 해석한다면 성공적인 축산경영은 어떻게 하든 축

산물의 생산수량을 증대하거나 또는 축산물의 품질을 개량하였을 때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는 경영(經營)의 본질(本質)은 이러한 기술면에서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면(經濟面)에서의 합리화(合理化)를 떠나서 이야기 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면에서의 합리화는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서 최대의 경영목적(經營目的)이 매년 달성될 수 있을 때, 혹은 일정한 경영목적(經營目的)을 달성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영조직(經營組織)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축산물 생산은 자가소비(自家消費)와 축력 및 부산물생산에 목적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상품생산(商品生産) 즉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은 시장(市場)에서 화폐화(貨幣化)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다 많은 화폐의 획득은 합리적인 축산경영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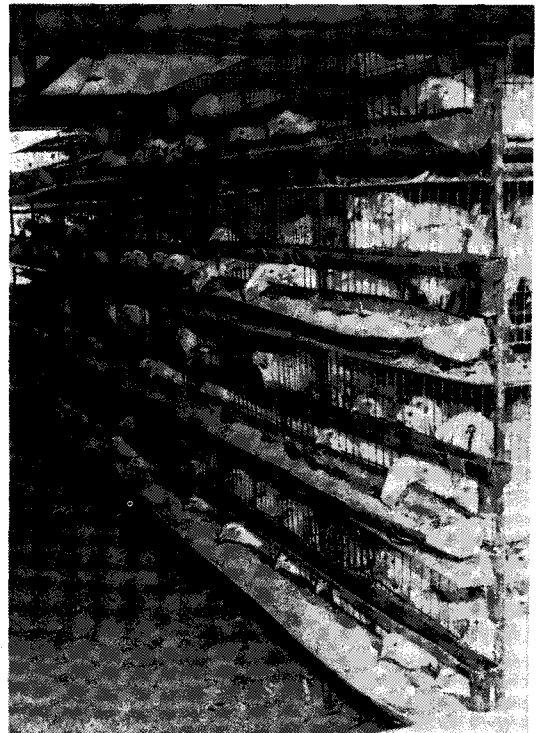
경영의 주체(主體)는 축산업자 즉 축산경영자(畜産經營者)이다. 경영자가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첫째,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일정한 조직체(組織體)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무엇을 어떻게 생산(生産)할 것이며, 생산물의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획득할 것인가, 자금(資金)의 융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경영적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기 위하여 항상 경영목적(經營目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경영의 모든 조직을 합리화(合理化)시키고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 2. 축산경영의 목적

경영의 목적은 축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따라서 또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되어 가고 또 그렇게 될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어느 시대 또는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도 구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개개 축산농가의 사정, 예를 들면 가축두수, 노동력, 자본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축산농가에서 택하여진 축산물생산의 목적은 어느 시대이든 축산농가간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폐경제(貨幣經濟)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물물거래(物物去來)가 지배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농가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직접 자기의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급자족(自給自足)의 경제하에 있었으므로 농업의 목표는 되도록이면 다량(多量)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화폐경제사회(貨幣經濟社會)에 있어서는 그와는 현저히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지난날과 같은 단순한 양적(量的)인 증산만이 그 목적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축산경영에서는 화폐가치(貨幣價值)로 표현된 조수익(粗收益)을 크게 하는 한편 그러한 조수익을 가져오는데 소요된 경영비(經營費)를 되도록 적게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차액(差額)인 순수익(純收益)이 크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의 이해를 위하여 축산경영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의 목적에 대한 몇몇 학자의 주장을 소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테아(A. THAER)

「되도록이면 많은 금전적 이익을 계속하여 늘이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되도록이면 많은 생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총생산가액(總生産價額)으로부터 비용(費用)을 공제한 후에 있어서의 많은 순수익(純收益)을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있다는 것이다.

#### 나. 튜넨(THÜNEN)

「경영의 우열은 거기서 얻어지는 지대(地代)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총수입(總收入)에서 각종 물재비(物財費)와 노동비(勞動費)를 공제하고 지대(地代)를 가능한 한 최대화(最大化)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라고 하였다.

#### 다. 아레보(AEREBOE)

「투하운영자본(投下運營資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고의 순수익(純收益)을 얻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후 이론을 바꾸어「농업 및 가축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있다」라고 정의를 수정하고 있다.

#### 라. 라우어(E. LAUR)

「계속해서 될 수 있는대로 최소액의 화폐적 비용으로 될 수 있는 한 다량의 화폐적 총수익을 올려 가능한 다량의 소득(所得)을 올리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때 소득이라는 것은 경영에 투입(投入)된 가축노동의 노동보수와 토지, 기타 고정자본(固定資本)의 총액에 대한

이자배당액(利子配當額)과의 합계로서 만약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자본을 차입(借入)하였을 때는 여기에 해당한 지대와 이자는 공제하여 총자본에 대한 이자액의 최대화가 경영의 목표라고 하였다.

#### 마. 테일러(TAYLOR)

「농업경영자의 경영적 활동의 지표가 되는 것은 년년히 지속하여 최대의 순이익(純利益)을 올리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즉, 농업자 및 그 가족의 노동이나 경영적노력에 대한 보수를 가능한 한 최대로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경영의 목적은 학자에 따라서 그 이론이 구구하다. 그러나 그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중의 하나는 축산경영의 목표를 축산순수익(畜産純收益)의 최대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축산소득(畜産所得)의 최대에 두는 것이다.

이 대립된 두가지 견해를 요약하여 보면 축산순수익의 최대를 취하는 입장은 축산조수익(畜産粗收益)으로부터 물적지출비(物的支出費)와 가축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고용노동(雇傭勞賃)과 같이 평가해서 이를 경영비(經營費)로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잔액을 최대로 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축산소득의 최대가 축산경영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축산조수익으로부터 축산물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사료, 비료, 약품 등의 물적지출(物的支出)과 가축노동력 이외의 고용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고용노동 지출액을 함께 합하여 공제하고 남은 잔액의 최대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산소득은 양축농가(養畜農家)의 가계(家計)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 중에는 앞에서 말한 순수익부분과 자가노동력(自家勞動力)에 대한 보수(報酬)가 구분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산소득(畜産所得)」과 「축산순수익(畜産純收益)」의

두 주장 사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축 농가 노임(勞賃)을 수입(收入)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용(費用)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영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모든 계획 및 운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극히 중요한데 위에서 말한 두가지 견해는 축산경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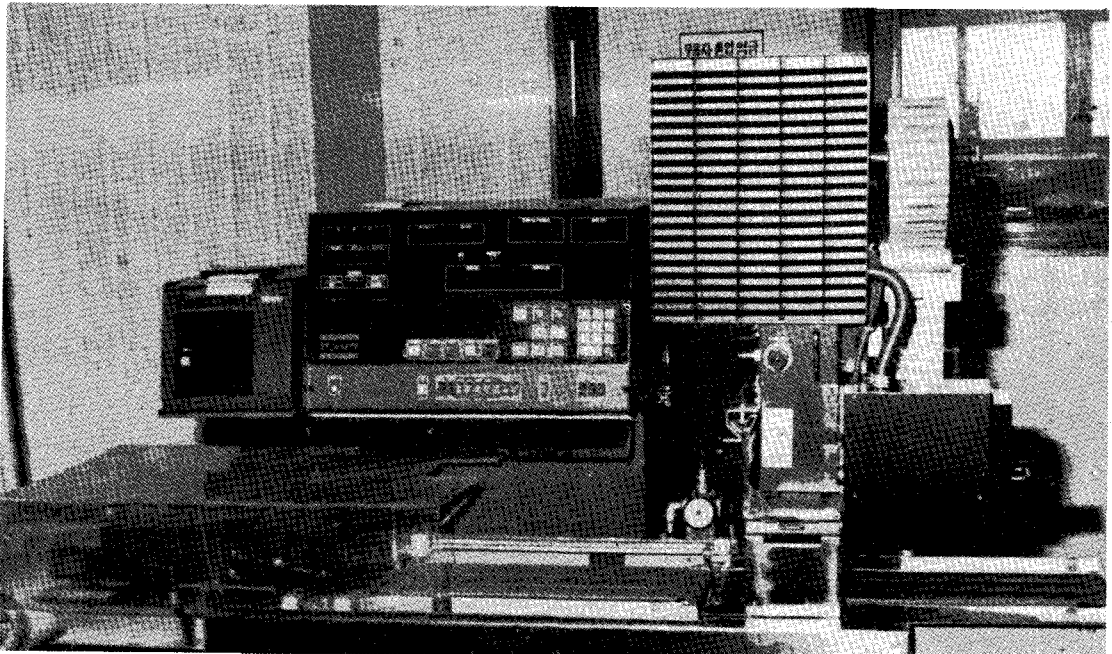
요즈음은 아무리 작은 농가나 양축농가라 하더라도 자본가적(資本家的) 경영타산(經營打産)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든 농가나 양축농가는 되도록이면 화폐가치로서 표현된 조수익(粗收益)을 크게 하는 한편 그러한 조수익(粗收益)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영비(經營費)를 적게 하여 그 차액을 가급적이면 증대(增大)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의 순수익(純收益)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축산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축산경영과 축산기술의 차이점

축산은 일반적으로 인간노동에 의하여 가축에 사료를 급여하여 축산물을 생산해 내는 물적(物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으로서 영위되는 경우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되는 노동, 가축, 사료 등의 생산재(生産財), 또한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각각 어떠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생산에서 가치가 희생되어서 새로운 가치가 생산된다고 하는 가치적 과정(價值的過程)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적 양계(산란계의 경우)의 경영에서는 기술적 과정의 목적은 계란의 생산이고 경제적 과정(經濟的過程)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의 획득이다. 축산은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두 과정이 종합통일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축산경영은 생산만이 아니고 생산재(生産財)의 구입, 생산물의 판매, 금융(金融)이라고 하는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축산경영과 축산기술을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산기술에 대하여 축산경영이 가지는 3가지 특질이 있다.

#### 가. 조직성(組織性)

축산경영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한 경영주체(經營主體)에 의하여 설정된 경영목적(經營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모든 생산요소, 경영행동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체계(體系)를 형성한다. 경영적 사고(經營的思考)는 항상 통일된 체계의 종합적 입장에서 경영 전체를 문제로 하고 거기에서 각 부문과 전체와의 관계, 전체내에서의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생각한다.

현재 양축(養畜)과 경종(耕種)을 같이하는 복합경영이 많은데, 이때에 경영과 양축을 영위하는 경영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경영적 사고(經營的思考)인데 오로지 물적 투입(物的投入)과 물적 산출(物的產出)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기술적 사고(技術的思考)와는 다르다.

#### 나. 경제성(經濟性)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영과정은 일면 가치적인 과정인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가치(價値)의 희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의 생성(生成)이 있다. 여기에서 희생되는 경제가치(經濟價値)가 비용이고 생성되는 경제가치(經濟價値)가 수익(取益)이다.

이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서 경영목표(經營目標)에 적합한 정도를 경제성(經濟性)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경영 전체에서 가장 좋은 경제성을 실현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경영적 사고(經營的思考)로서 오직 물적 투입과 물적 산출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기술적인 사고와는 다르다.

#### 다. 지속성(持續性)

축산경영은 축산의 조직인데 이것은 단 한번의 생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경영목적(經營目的)을 가지고 재생산(再生產)을 계속하는 지속적 조직(going concern)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재생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물, 가축, 사료 등 생산요소(生產要素)의 지속적인 확보와 경제성의 지속적·안정적 확보이다.

여기에서 경제성(經濟性)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는 가축의 질병과 사망에 의한 생산감소(生產減少), 생산물가격의 하락, 사료 등 자재(資材)가격의 상승 위험이 경영상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 4. 축산경영의 경제성(수익성)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축산경영은 경영주체(經營主體)가 설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되는 것이므로 그 경영목표, 즉 사경제적 경제성(私經濟的經濟性)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경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지배적인 경영형태는 기업경영(企業經營)이다. 기업경영은 일정한 자본(資本)을 투자하여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져 고용노동을 이용하며, 투자자본의 증식 즉 이윤(利潤)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여기에서 경영활동은 이윤의 크기, 또는 투자자본에 대한 이윤율(利潤率)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이 자기자본(自己資本)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최종 관심사가 된다. 이 이윤(利潤)에서 투자 자기자본 이자와 자작지대(自作地代)를 뺀 것을 기업이윤(企業利潤)이라고 하는데 기업가의 기업노력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윤율은 기업의 자본구성(자기 자본과 차입자본 비율)과 차입자본(借入資本)의 이자율(利子率)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생산경영자체의 수익성(取益性)을 비교하는

지표(指標)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자본의 소유 관계를 떠나서 경영에 운용된 전자본(全資本) (자기자본 + 차입자본), 말하자면 경영·경제 그 자체의 객관적인 수익성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순수익율(純收益率)인데 생산경영수익성(生産經營收益性)의 일반적 지표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관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text{순수익(純收益)} = \text{조수익(粗收益)} - (\text{물재비} + \text{노동비} + \text{조세공과})$$

$$2) \text{이윤(利潤)} = \text{순수익(純收益)} - \text{차입자본이자(借入資本利子)} - \text{차입지대(借入地地代)}$$

$$3) \text{기업이윤(企業利潤)} = \text{이윤(利潤)} - \text{자기자본이자(自己資本利子)} - \text{자작지대(自作地地代)}$$

$$4) \text{순이익율} = \frac{\text{순수익}}{\text{자기자본} + \text{차입자본}}$$

$$5) \text{이윤율} = \frac{\text{이윤(利潤)}}{\text{자기자본(自己資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에 기업경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과 축산은 가족경영(Family farm)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농민가족을 단위로 해서 경영주 및 가족노동력과 자기소유의 토지,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여 가족생활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경영은 단일의 개별경제(個別

經濟)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농가경제(農家經濟)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축농가의 경영활동을 규정하는 경제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분히 질적(質的), 심리적(心理的), 주관적(主觀的)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영개선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서 축산경영을 가계(家計)에서 분리하여 파악할 때 경영의 결과 1년간의 자가노동 및 자작지, 자본에 대한 보수의 총체로서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에 관심이 쏠려 부기적(簿記的)으로 파악하면 이것은 축산소득이다. 이러한 축산소득이 가족경영의 경영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자가노동력에 비하여 고정자본 투자가 낮아서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형 가족경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자가노동력에 비해 고정자본의 비중이 높은 자본형 가족경영이 발달하고 있다. 이것은 자가노동력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점에서는 가족경영이지만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여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본에 대한 보수를 추구하는, 성격상 기업경영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적 가족경영(企業的家族經營)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비교적 규모가 큰 축산농가는 기업적 가족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본회 '85 전국 대의원총회 개최

- 일시 : 2월 15일(금) 오후 2시반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